

'인천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', 문화도시 강릉 비교시찰

✎ 이범수 | ⓒ 승인 2023.06.28 20:57



인천 서구의회 '인천서구 문화·체육 발전 연구단체' 회원들이 강릉문화재단을 방문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. 사진=서구의회

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'인천서구 문화·체육 발전 연구단체'는 지난 25일 강원도 강릉시를 찾아 주민의 문화 환경 등을 확인하는 비교시찰을 진행했다.

정태완 대표의원을 비롯한 3명 의원(고선희·송승환·송이)과 3명의 자문위원(전재운·정영신·이규택)으로 구성된 이 연구단체는 서구민의 문화·체육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.

이번 비교시찰은 강릉이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2021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시찰 지역으로 선정됐다.

비교시찰의 첫 일정으로 강릉문화재단을 방문해 상임이사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. 이어 명주예술마당, 작은 공연장 '단', 명주 사랑채, 시나미 플랫폼 등 4개소를 방문해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참여 현장 및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고, 서구의 현황과 비교하며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다음 날에는 오전 6시부터 정동진의 모래시계공원을 방문해 환경 등을 정서진과 비교해 보고, 이어서 공원, 미술관, 박물관, 갤러리까지 한 공간에 자리한 복합예술공간인 하슬라아트월드를 방문해 지역 주민, 관광객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현장과 시설 내부를 확인했다.

정 대표의원은 "우리 연구단체의 첫 비교시찰이었던 만큼, 문화도시 강릉에서 보고 느낀 바가 매우 뜻깊다. 주민을 문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이해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비교시찰이었다"며 "주민이 직접 기획하고, 참여할 수 있는 서구만의 문화발전을 위해 연구단체 회원분들과 강한 열정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가겠다"고 연구단체의 다음 행보를 기약했다.

이범수기자



이범수 ameegojbn@joongboo.com

저작권자 © 중부일보 - 경기·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